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65 2015 / 3

책날개 활짝 펴고 신나게 출발해요



잘라진 길

글 밀양 송진초등학교 교사 최용규

꾸불꾸불
멀고 먼 길
싹둑 잘라
가까운 길

곡선의 멋
팽개치고
직선의 실리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말았네

산짐승
대대로 이어온 길
잘라내고
파내고

죽음 뒤에
또 죽음 이어지고
그 죽음 위에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 소리만 요란할 뿐이네



Contents



04 권두언

진실은 가깝고 단순하다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장학칼럼

설렘과 기대가 있어 시작은 더 아름답다 / 정병문

09 특별기획 / 2015.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2015. 경남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 추진 계획 / 하만홍
모자이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자유학기제 / 황치우
학교 너머 학교를 완성한 자유학기제! / 김정옥

18 교육정보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 / 박혜숙
초등수학 개정교육과정...2015년 5,6학년 군 마지막 개정
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협업을 위한 MOU 기관

22 배움 중심 수업

3월, 공감과 소통으로 배움이 있는 행복수업 출발하기 / 문지영
나의 거꾸로 교실 / 정진아

26 배움이 즐거운 학교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선정이라는
만선의 기쁨이 있기까지(통영 충무초) / 임화천
꿈을 향해 끼로 도전하는 오감특목! 자율림 교육(의령 신반중) / 김광년
협동학습으로 키워가는 배움이 즐거운 우리반(산청초) / 김경태

32 동아리 탐방

SINCE 2012 공감대화연구회를 만나다 / 변은정

34 이달의 교사

학생과 교사의 소통 속에 답을 찾다 / 차승민

36 책 읽는 교사의 서재

교사 정한섭의 서재는 삶에 대한 위안이다. / 정한섭

38 삶의 향기

고향길 / 이유종

39 지상갤러리

천명석란 / 최임숙



표지사진 "책과 함께하는 입학식"
이지영(반송초등학교 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4월호 모집 기간 : 2015년 3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삶의 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5년 3월 2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정병문 기획 |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박혜숙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대현

편집위원 | 박영선, 박선정, 배인숙, 김요섭, 정호찬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진실은 가깝고 단순하다

철인(哲人) 정치를 표방한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은, 서양 철학의 비조인 그가 내세우기에는 얼핏 마뜩잖아 보입니다. 시인이란 극작가를 두고 한 말이지만 예술가 모두를 일컫습니다. 예술가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술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는 ‘침대’를 보기로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침대들이 있지만, 침대의 ‘이デア’는 하나뿐입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침대들의 자잘한 차이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만 개념적으로 남게 됩니다. 곧 침대의 추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 침대의 이デア는 신(神) 또는 섭리가 만들어 낸 것이고, 그 이デア가 물상으로 구현된 실체들은 이デア를 품고 있지만 얼마쯤 멀어져 있습니다. 목수는 이デア를 바탕으로 침대를 만듭니다. 신 다음으로 인정할 만한 제작자입니다. 그런데 침대를 그린 화가는 침대의 이デア에서 매우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모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방자가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예술가들이고, 이들은 이デア에서 한참 떨어진 이미지로 이デア의 진실을 가립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デア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관념입니다. 그 관념은 구체적 물상이나 현상을 실현시키는 모태가 됩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현현된 실상 속에서 추출한 알짜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상(事象)을 제어하고 있는 참된 관념이든, 무엇을 만들어 내는 근원으로서의 씨앗이든 본질은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버리고 버리는 사상(捨象) 끝에 도달하는 추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도 사물과 현상, 행위의 참된 정의(定義), 곧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난 뒤 찾게 되는 속살처럼 본질은 단순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지금의 상태에서 애초의 단순성을 향하므로 시간적으로 보면 가역적입니다. 현재의 모순에서 본디의 순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반성적입니다. 반성의 사유가 전제되는 까닭에 철학적인

수박에 없습니다.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의문과 반성을 통해 단순성을 찾아가는 철학적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학교 교육의 본질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관념이므로 실현되고 있는 교육의 양상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과 탐구 활동도 일어나고, 암기와 암송도 일어나며, 비판과 토론도 이루어집니다. 요약과 서술의 작문이며, 감상과 발표의 표현도 따릅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구체성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른다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할 때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사무실로 눈을 돌려보면, 본질에서 멀어진 걸치레들이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 노력보다, 계획서를 만들고 보고하는 문서적 행위가 더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교육과정 우수학교나 연구학교 업무도 학생들의 배움을 돕는다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업무에 더 큰 힘을 쏟습니다. 교원능력평가나 학교평가의 취지가 교육력을 높이려는 데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절차와 규정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일 텐데 복잡해진 그 법규가 그물이 되어 본질은 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했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본질을 덮고 있습니다.

시인 백낙천이 항주 자사로 부임하고는, 고승 도림 선사를 찾았습니다. 나무 위에 새 둥지처럼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조과(鳥窠) 선사로도 불렸던 도림이 마침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지르니, 도림 선사는 땅을 밟고 선 백낙천더러 도로 위태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까닭인즉슨 인심과 알팍한 명리에 기대고 있으니 어찌 위태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백낙천은 깨달은 바가 있어, 선사께 불법의 참뜻까지 물었습니다. 나쁜 짓은 짓지 말고, 선한 일들만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불법의 요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세 살 아이도 아는 것이지 않느냐고 실망스런 푸념을 늘어놓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것을 여든 노인이 될 때까지도 행하기 어렵다는 일같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것도 같지만 삶의 진리, 곧 사리(事理)는 그리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본질도 이미 알고 있듯 쉽고 간단합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따름입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선언한 것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싱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함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침대를 장식하느라 침대에서 잠들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울긋불긋한 색깔로 침대를 그리는 데 정신이 팔려 학생들에게 침대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삼월입니다. 우리의 한 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도림 선사의 나무 위로 올라갈 때입니다. 단순한 그 진실을 굽어보기 위하여.

삼월, 그 설레는 날을 맞으며

교육감 박종훈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생생현장



- ① 청렴학교 실천협약 체결
- ② 에너지 절약교육과 친환경 학교만들기 협약체결
- ③ 초등신규1기 임용교사연수 특강
- ④ 활기찬 조직, 행복한 직장교육

- 5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운영 관계자 연수 (밀양교육지원청)
- 6 2015. 예비학부모대학 운영 (산청교육지원청)
- 7 情가득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통영교육지원청)
- 8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거창교육지원청)
- 9 2015학년도 학급급식 기본방향 전달연수(남해교육지원청)
- 10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며! (의령교육지원청)
- 11 2015. 새내기 교사 연수 (경남유아교육원)





설렘과 기대가 있어 시작은 더 아름답다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2월의 마지막 주 대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3월 2일, 초·중등학교에서도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학교와 학급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책과 함께 시작하는 책날개 입학식, 신입생을 한 명씩 소개하며 가족을 맞이하듯 실시하는 학생중심 입학식, 입학선물을 수여하는 입학식, 선배들의 축하공연으로 신입생을 맞이하는 축제 형식의 입학식, 학교투어형 입학식 등 입학식의 형식은 매우 다양해졌다.

새 학년 첫 날, 진급을 축하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한 조각씩 나누어 먹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학급, 새 학년의 목표를 세우며 알찬 한 해를 계획하는 학급, 새로운 학급에서의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 협업미션을 수행하는 학급 등 시업식 날의 학급 풍경 역시 매우 다양해졌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차별화하고 있다. 새 학년의 첫 날을 적응활동이나 자치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간소한 행사 실시 후 곧바로 교과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소심한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개인발표를 지양하는 학급이 있는가 하면 학습 상태 진단을 위해 개인발표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학급도 있다.

과정과 방법에 있어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렇게 새 학년의 첫날에 대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한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들의 숨은 교육적 의도나 이유를 간과하며 겉으로 보이는 입학식 또는 시업식 날의 일과 운영만으로 학교급 간의 교육활동에 대해 비교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새 학년 첫 날은 무척 의미 있는 날이다. 모두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한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와 설렘, 자신의 목표를 향한 다짐으로 그 첫 단추를 끼웠을 것이고 학부모는 자녀와 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 첫 단추를 끼웠을 것이다.

올 해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초등에서는 5,6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중등에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수능·내신평가방법 개선 방안 발표, 평가방법 개선 방안 등의 이슈들이 예상된다. 이제 이 모든 것은 3월 2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2015학년도를 힘차게 출발한 미래의 주역인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의 버팀목인 교사, 든든한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특별기획

2015.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 교육을 실현하고자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5. 경남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 추진 계획

글 경남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하만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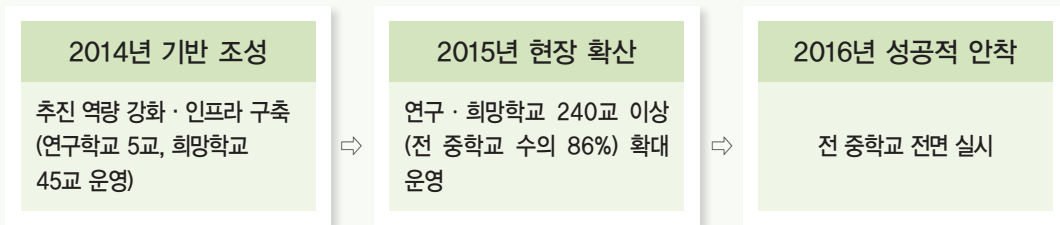
I. 자유학기제는 교육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단초

자유학기제의 본래 목적은 학교교육을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키우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교육부의 시범운영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초점이 ‘수업 개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의 형태를 교사중심수업에서 학생참여형·활동형 수업으로 바꾸고, 진로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는 현재 중학교 한 학기에 적용되지만, 향후 자유학기제를 초·중·고 교육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단초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교육과정 편성·편성 운영의 유연화, 평가 방법의 변화, 각종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체험 인프라 구축이라는 학교교육의 전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우리교육의 전반적 변화를 견인하는 단초로 작용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교육에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모든 교육공동체가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II. 경남 자유학기제 추진 로드맵



III. 2014. 자유학기제 기반조성 사업 추진 성과

2013년 5월 28일 교육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6월 4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을 가졌다.

2013년 9월부터 우리 도에서는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기반 조성 계획’은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각종 온·오프라인 조직 구축’, ‘교육공동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홍보 강화’, ‘심도있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현장지원’, ‘학교 현장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우수사례 일반화’,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기부·유관기관 MOU체결’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불과 반년 동안 추진된 기반조성 사업은, “자유학기제 확산의 추동력을 확보하였고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도 2학기에 창덕중학교와 거제중앙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자유학기를 적용 시범 운영하였다. 연구학교 운영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창덕중학교는 진로교육 부문에서 전국적인 표본이 되었고, 거제중앙중학교는 대규모 학교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4년에는, 1학기 자유학기제 적용 연구학교 3교(거창여중, 하동중앙중, 김해대동중)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전 중학교 수의 16.4%에 해당하는 희망학교 45교를, 통영교육지원청을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고 관내 전 중학교(12교)가 희망학교 운영에 참여하였다.

자유학기제를 50교에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별·학교규모별 자유학기제 운영의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셈이다.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특성과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야하고 어떻게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었다는 점이 큰 결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이제껏 여타 교육정책과 달리 자유학기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것을 확인한 점이었다. 이것은 자유학기제 정책이 교육 본질과 맞닿아 있어, 자유학기제의 실현이 곧 교육본질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 교육공동체에 넓고 깊게 자리잡은 결과로 여긴다.

IV. 2015. 경남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 추진 계획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과 학교문화를 바꾸려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이며, 학생들의 꿈을 찾게 하고 끼를 살려주는 교육본질로 되돌리려는 점진적인 교육 운동이다. 따라서 우리 도내의 모든 교육기관과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야 자유학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생각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 계획

추진과제	해당 기관	주요 추진 내용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 지역별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 계획 수립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준비 및 시행 계획 수립
	• 연구·희망학교	•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운영 (정보공유·홍보)	• 교육지원청	• 자유학기제 메뉴 설치 운영
	• 전 중학교	• 홍보 팝업(동영상) 설치 : 자유학기제 취지 안내 • 메뉴 설치 : 개념, 운영계획, 실적, 자료 공유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조직	• 교육지원청	• 자유학기제 운영 협의회 •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진로교육협의회,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단위 학교	• 자유학기제후원단 조직 운영 • 자유학기제 추진 T/F팀 조직 운영
연구·희망학교, 선도교육청 운영 (지역 운영 모델 창출)	• 교육지원청	• 운영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소속 운영 학교 컨설팅 지원 • 소속 운영 학교 애로사항 지원(학교방문 협의) • 핵심성취기준 기반 학생참여·활동형 수업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진로코치 확보 및 양성 • 학교간 동아리 연계 활동 강화 및 지원 •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역량 강화
	• 연구·희망학교	• 심도있는 현장 연구·실천 •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확산
교수·학습 방법 변화 (핵심성취기준 기반 학생참여형 수업)	• 교육지원청	• 핵심성취기준 기반 ‘학생참여·활동형 수업’ 연수·컨설팅 강화 • 블록타임을 이용한 과목 간 융합·연계 수업, Co-Teaching, Co-Learning 연수·컨설팅 강화
	• 전 중학교	• 교과협의회 활성화 및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촉진 •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에 대한 자율 연수 실시 • 소속 교원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연수 권장 • ‘학생참여·활동형 수업’ 공개 수업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	• 교육지원청	• ‘진로교육협의회, 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내실화 • 단위학교 진로탐색 활동 지원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 진로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 - 체험 인프라 매칭시스템(전산망 ‘꿈길’) 가동
	• 전 중학교	• 교과 통합진로교육과정 운영 • 학부모 진로코치 활용 • 학부모·지역사회 직업인 멘토 활용 •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활용
연수·홍보 강화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	• 교원 연수 실시 : 정책 이해, 운영의 실제, 교실 수업 개선, 평가방법 개선 등 • 홍보 활동 강화
	• 전 중학교	• ‘핵심성취기준 기반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연구 및 공개 • 학부모 연수 및 홍보 실시
각종 체험 인프라 구축(원활한 각종 체험활동 지원)	• 교육지원청	• 기초지자체 단위 공공기관·민간 기업 등 유관기관과 MOU 체결 추진 •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전 중학교	• 동·면 단위 공공기관·민간기업·유관기관 MOU 체결, 직업체험 장소(프로그램) 발굴 • 교육기부 활성화 • 학교 자율적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적용

2. 기대 효과

- 2016년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공동체의 정책 시행(Bottom-up) 공감대 형성 기대
- 교원들의 자유학기제 시행의 전반에 대한 현장 실행 역량 강화 기대
- 연구·희망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모델 창출 기대
- 각종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협조 체계 구축 기대

V. 제 빛깔과 향기를 내는 자유학기제를 꽃 피우려면

자유학기제가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 학교의 자율성과 수평적 리더십의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

자유학기제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각종 선택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운영 등 학교 차원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 주어진 재량권을 활용하여 교사들 간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기획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젠 더 이상 교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교사들이 기존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을 학생 참여·활동형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의 주체이다.

-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과 학습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운영되지만, 교육과정 편성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원 전체의 노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에 학습공동체가 구축되어 교사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진정한 교직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창조경제가 될수록 창의성, 지식, 문화,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시키려면 학교와 교사의 힘만으로 이루질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학교와 교사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지역 사회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곧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학교로 유입되고 활용되어 이를 통해 배출된 인재가 다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의 구축이 진정한 교육공동체 형성임을 유념해야 한다.



모자이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자유학기제

글 거제중앙중학교 교장 황치우

본교는 2013~2015년도까지 ‘모자이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자유학기제’란 주제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4학년도 2차년도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운영 사례 및 본교의 특성화된 수업인 드림캐처 양성을 위한 SCT운영에 대해 설명하고자한다.

1. 자유학기제 운영

가. 직업체험 미담사례

자유학기제의 하나의 축으로 운영되는 직업체험활동은 크게 개인 직업체험과 단체 직업체험으로 구분된다. 우리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2년차에 들어서면서 1년차와 연계하여 직업체험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미담사례를 얻을 수 있었다.

청소년 금융체험교실 개설(신현농협 중곡지점) : 2013년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자 담당자가 금융관련 체험할 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이 통장개설 체험, 자동화기기(ATM) 체험, 화폐개수 및 위폐감별, 하나로 마트 물품 재고 관리, 금융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나. 자유학기제 성공사례

사이버 수사대 (1-7 오○○)

이번 직업체험 활동은 평소에 접해 보지 못했던 직업체험을 할 수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경찰서, 군부대, 잡 월드에서의 과학수사대 체험 등은 ‘사이버 수사관’이라는 내 미래 직업에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고 나에게 직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나도 훌륭한 사이버 수사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초등학교 선생님(1-8 강○○)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라는 책의 제목처럼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이고, ‘선생님은 살아 있는 교육과정이다.’ 라는 저자의 의도처럼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닌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 가면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내가 원했던 ‘선생님’이란 꿈을 이룰 것이다.

학 부 모(김○○)

우리 아들이 맨 처음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서 긴장이 너무 풀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는데 너무 떠든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2,3학년 시험기간에는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며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을 다녀와서는 막연하던 꿈이 더 명확해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고 학생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한다는 것이 부모로서는 매우 믿음직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준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드림캐처 양성을 위한 SCT(Self-Choice Teaching) 운영

가. SCT란?

SCT(Self-Choice Teaching)란 행복한 학교 구현을 목표로 교사와 학생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업으로 핵심성취기준을 적용하여 가르칠 시간을 확보한 뒤 교사는 자신의 특기, 전공,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가치 있는 수업주제를 선정하고 통합 진로교육이 구현된 수업을 제공하면 학생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하는 수업을 말한다.

나. SCT(Self-Choice Teaching)의 필요성

- 1) 학생 개개인에게 내재되어있는 재능이나 끼를 발현시키고, 학생의 진로탐색역량을 신장시키기위하여 다양한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 2) 교사에게는 자신의 특기나 다듬어진 교육철학을 제자들에게 전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 3) 시험 직후, 방학 전, 학년말 등 가르칠 수업내용 부족하여 교육과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해결책이 필요하다.
- 4) 교육과정을 보충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 SCT수업 주제의 실제 >



합리적인 소비와 경제활동



다양한 사회 모습(신문활용)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준비

다. 수업 후 반응

학생들이 SCT에 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학생 면담 결과 수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강의들을 선생님이 개설을 하고 학생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수강함으로써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학교 너머 학교를 완성한 자유학기제!

글 창원 창덕중학교 교장 김정옥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라는 목표로 시작된 자유학기제...

본교는 2013학년도 우리들에게 아직은 생소하였던 자유학기제를 다른 어떤 학교보다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학력 저하 우려와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진로 탐색 및 체험 기회의 제공이 과연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교사들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은 학부모와 지역사회라는 교육적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알려진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입니다. 실제 자유학기제는 학교가 가진 교육자원 만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역사회가 가진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본교는 이미 온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았으며,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자체가 본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가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LTI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본교 자유학기제 LTI프로젝트 학습은 자신이 배우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계획하여 외부 전문가 멘토의 도움을 받아 매주 목요일 오후 시간에 프로젝트 학습을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 프로그램의 첫해인 2013학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약 9%가 참여 하였지만, 2014학년도에는 24%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역의 많은 외부 전문가 멘토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활동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인 이○○ 학생은 스마트폰 어플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프로젝트 학습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이라는 작은 중소도시 그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상 스마트폰 어플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움

이 있어 포기하고자 하는 순간에 창원교육지원청의 재능기부 인력풀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에게 어플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기도 하고, 대학생 형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학생에게 목요일 오후는 이미 대학생활을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농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점심시간까지 포기하면서 학교로 와서 아이들에게 농구의 기본기를 가르쳐 준 전직 프로농구 선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유명 치어리더도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치어리딩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결과 아이들은 전문 치어리더와 함께 농구장에서 합동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포크아트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고, 요리를 통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인 푸드테라피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찰인 아빠의 직업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창원 서부경찰서에서 다양한 경찰의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꿈 동아리 활동과 함께 진로 탐색의 기회를....!

본교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중에는 꿈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기 적성이나 취미 중심의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진로 희망별로 구성된 꿈 동아리는 학생과 길잡이 교사, 해당 진로 분야의 외부 전문기관, 학부모 혹은 지역 대학 교육 봉사생이 함께 활동하는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입니다. 2014학년도에는 모두 13개의 동아리가 결성되어 많은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교에는 ‘골든타임 119’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꿈인 아이들이 모인 이 동아리의 운영을 위해서 ‘창원소방서’의 많은 소방관들이 본교에서 ‘작은 소방관되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부터 전문적인 소방공무원의 직업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학교에는 응급차가 오기도 하고, 소방차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소방서로 체험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사와 간호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히포팅게일’의 활동을 위해서 지역의 병원이, 요리사가 꿈인 아이들의 ‘요리조리’의 활동을 위해서 지역의 영양사들이, 또 다른 동아리의 활동을 위해서 지역의 대학생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학교 울타리 밖 세상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었고, 온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교의 가장 큰 성과이자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5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장학활동의 방향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

The Happy Class that Learns and Shares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 박혜숙

1. 교육본질회복의 원년, 장학활동 이렇게 열어 갑니다.

2015년을 ‘교육 본질 회복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경쟁보다 협력을 앞세워 배움이 즐거운 교육,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비리 없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실천과제로 삼고 ‘새로운 경남 교육’을 만들어 갈 새학년 새교실이 시작됩니다. 이에 2015학년도 장학활동은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슬로건으로 삼고 열어 가겠습니다.

2.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실현하기 위한 장학의 방향이 종래의 확인, 점검위주의 장학에서 자문, 조언, 협의위주의 장학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위주로 한 확인 점검 장학에서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 2015학년도 장학활동 슬로건 :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교실
- 장학영역을 세분화하여 장학, 교육과정, 수업전문성, 평가, 인성교육, 진로진학, 학교(급)경영 등 7개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나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의 장학계획에 따라 자율성 부여
- 컨설턴트를 교장, 교감,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활용하고 기존의 수업명사, 수업연구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 우수교사는 교내 자율장학 요원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 등의 영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전문직은 필수 장학요원으로 활동함
- 주제있는 지구별 장학협의회
 - 유,초등학교 :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 중학교 :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 고등학교 : 진로연계 학력향상 방안
-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컨설팅 장학, 교육정책 장학협의회, 특별장학,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장학담당자 협의회 등은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함

3.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위한 중점 장학활동입니다.

2015. 경남교육 중점 장학활동은 맞춤형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참여중심의 수업 강화,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장학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 맞춤형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협동심, 문제해결력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함양에 초점을 두고 학교교육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 학사 운영의 다양화·내실화를 위해 지역, 학교 실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월별 단기체험형, 봄가을 단기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 등의 유형으로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 학생참여중심의 수업 강화

-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배움 중심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중심의 상호작용, 소통, 공유, 참여, 협력이 있는 색깔있는 수업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 종전의 강의식,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에서 토론, 실험실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교육과정의 적극적 재구성을 통한 수업방법을 교과내 또는 교과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중심학습, 지도 시기 조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 과정중심 수시평가 활성화

- 평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수업방법의 질적 개선과 변화 촉진을 유도하고 창의·자율·융통성·협업형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학교 단위의 일제식 선택형 중심의 지필평가에서 탈피하여 평가의 시기, 내용, 방법, 횟수 등을 학년(학급)별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존의 4지선택형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토의토론, 실험실습,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수시평가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 지필평가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은 50%이상 확대하겠습니다.
- 과정중심수시평가를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평가관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초등수학 개정교육과정... 2015년 5, 6학년군 마지막 개정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2015년 5·6학년 군이 마지막으로 개정됩니다. 초등 수학 교과부분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교육 Q&A』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Q. 2009 초등 수학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은 및 방향은?

- A. ①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 방안 모색
 ②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 인성 중심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요구
 ③ 수학 교과 학습내용 20% 경감
 ④ 학년 군 단위 개발...1·2학년 군, 3·4학년 군, 5·6학년 군으로 3개 군으로 나눔
 ⑤ 수학적 창의성 강조

Q. 2009 초등 수학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 A.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 ~ 9학년, 학년군>
 ② 학교급별 5개 내용영역에 따라 내용 구성...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분	1~2 학년군	3~4 학년군	5~6 학년군	구분	1~2 학년군	3~4 학년군	5~6 학년군
수 와 연 산	네 자리 이하의 수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다섯 자리 이상의 수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2학년 → 3학년) 곱셈 나눗셈 자연수의 혼합 계산 분수(2학년 → 3학년) 소수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	약수와 배수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와 소수	도형	입체도형의 모양 평면도형의 모양 평면도형과 그 구성요소	도형의 기초 평면도형의 이동 원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다각형	합동과 대칭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각기둥과 각뿔 원기둥과 원뿔 입체도형의 공간감각
수 지도 시기 조정				초등 식재 : 회전체 (6학년 → 중1학년)			
측정				규칙성			
구분	1~2 학년군	3~4 학년군	5~6 학년군	구분	1~2 학년군	3~4 학년군	5~6 학년군
	양의 비교 시간 읽기 시각과 시간 길이	시간 (시간의 덧셈, 뺄셈, 약화) 길이 넓이 무게 각도 어림하기 (반올림, 올림, 버림) 수의 범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평면도형의 둘레 (4학년 → 5학년)와 넓이 무게와 넓이의 여러 가지 단위 원주율과 원의 넓이 겉넓이와 부피	규칙 찾기	규칙 찾기 -물체, 무늬, 수	규칙 찾기 규칙과 대응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정비례와 반비례
초등 식재 : 발정식, 연비(6학년 → 중1학년)							
확률과 통계				초등 식재 : 확률(6학년 → 중1학년)			
구분	1~2 학년군	3~4 학년군	5~6 학년군	초등 식재 : 발정식, 연비(6학년 → 중1학년)			
	분류하기 표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자료의 정리 - 간단한 그림그래프 (5학년 → 3~4학년) 막대그래프와 꺾은선그래프	가능성(신설)과 평균 자료의 표현 비율그래프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초등 식재 : 확률(6학년 → 중1학년)			
초등 식재 : 줄기와 잎 그림 (5학년 → 중1학년) 경우의 수와 확률/할포리 (6학년 → 중2학년)				초등 식재 : 확률(6학년 → 중1학년)			



Q. 2009 초등 수학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 A. ① 수학적 창의성 및 인성 함양 신설
 ② 수학적 과정 영역 추가 제시 : 문제 해결 방법, 과정,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 과정 중시
 ③ 수학 교과 교실 활용 : 수학 자료실+수학 교수-학습실, 방과 후 자유놀이실형실로 사용
 - 학년 군 필수 학습자료 목록에 따른 교구(자료)구비, 모둠별 책상, 의자, 탐구형
 소프트웨어 가능한 컴퓨터코너 마련



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협업을 위한 MOU 기관

지난 1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는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MOU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참여한 기관들의 자유학기제 지원내용을 소개합니다.

// 에너지수요관리,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전국 4개 지역(용인, 대전, 광주, 대구) 녹색에너지 체험관을 활용한 시설 탐방이 있으며, 여기서는 진로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에너지토모로우’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에너지프로젝트 1331’을 통해 학생들에게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직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전문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현장탐방 특강’을 통해 진로 탐색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동영상 및 강의안 제공을 통해 자유학기제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창업자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전문기관

창업진흥원에서는 대표적인 자유학기제 지원 인프라로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기간 중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이론 교육 및 특강, 현장 탐방 등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 중심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산업현장체험 ‘기술 대장정’, ‘숙련기술 체험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전문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찾아가는 해양환경 진로교육 강사 및 해양환경교실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환경 프로그램과 해양환경 관련 진로 컨설팅, 교사 대상의 해양환경연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환경개발교육원 탐방 및 전국 12개 지사를 활용한 탐방 등 여러 체험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자유학기제 뉴스레터 제24호(2015년 2월)」

3월, 공감과 소통으로

배움이 있는 행복수업 출발하기

배움, 마음을 움직이다

작년 가을, 6학년 도덕과 6단원 중 ‘용기’에 대해 배우는 마지막 시간에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나의 용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모둠별로 함께 차트 토론을 하는데 한 모둠에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남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당연히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한 여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왜 늘 공부밖에 없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여학생은 국어, 수학 등을 떠올리며 공부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에 잠시 끼어들기 하여 ‘만약 꿈이 요리사라면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며 예시를 들어 질문을 제기했다. 순간, 여학생은 ‘아하!’를 외쳤다. 여학생은 ‘공부’라 하면 강제적인 느낌이 들어 싫었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고 결국 ‘나의 꿈에 맞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용기를 실천하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아이들의 모둠 토론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움’을 공부에 비해 보다 자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하!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던 거구나.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는 말 대신 ‘함께 배워보자!’는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높여 학습에 참여하도록 해야겠다.

배움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3가지 요소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습 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

왜 배워야 하는가?
(학습의 필요성 공감)
⇒ 지속적인 동기유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소통하는 학습 방법)
⇒ 생각+표현+체험활동

행복수업의 시작, 공감과 소통의 ‘공감대화법’으로 행복한 관계 맺기부터

학생들의 즐거운 학습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학습 동기유발도 중요하지만, 학습활동 중에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행복한 관계 형성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는 학생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여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기른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정코칭이라 불리는 존중과 배려의 대화법이다. 학생의 감정을 읽어주고 학생의 입장을 공감하며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특히, 비폭력대화법은 흔히 ‘나-전달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찰-감정-바람-부탁의 4단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교사와 함께 학생들도 익히고 실천하면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

공감과 배려의 대화법은 학습 활동 중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학생의 배움을 높이려면 생각하고 말하는 토의·토론이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많이 생각하고(유창성), 비판하지 않으며(개방성), 자유롭게 생각하고(융통성), 결합과 개선(문제해결력)하는 창의·인성의 사고와 대화의 방법이다. 흔히 모둠 토의에서 많이 활용하나 교사-학생 전체 학습활동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도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고 경청하고 수용하며 유연한 생각으로 최선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과 방법을 교사가 시범을 먼저 보여주며 익히게 한 후 모둠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존중과 배려의 학습 약속’으로 행복한 교실 만들기

3월은 학생들이 학습 습관을 익히는 시기로 학급 생활이나 학습 규칙을 교사가 정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학생들이 직접 학습 약속이나 생활 규칙 만들기에 참여하게 하면 보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모둠 학습 약속은 도화지를 접어 삼각대 모양의 네임 텐트를 만들어 앞면에는 모둠 이름을 적고, 뒷면에는 모둠 약속을 적어 모둠 활동 때 활용하면 좋다. 또한 학급 전체의 학습 약속이 정해지면 학생들이 직접 4절 이상의 종이에 약속 내용을 적어서 교실에 게시하여 함께 실천하도록 한다.

1) 행복한 모둠 만들기

- ① 모듬을 만들어 앉고 어깨 짙, 얼굴 짙, 대각선 짙과 서로 칭찬 인사 나누기
- ② 모듬원 모두 같이 손을 잡고 긍정의 인사 나누기(만나서 반가워!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 등)

2) 존중과 배려의 학습 약속 만들기

- ① 그림책 『틀러도 괜찮아』를 읽고 우리가 지키면 좋을 내용 3개 생각하기
- ② 창문토의학습지에 자신의 생각 쓰기
- ③ 비슷한 내용을 결합 개선하여 모듬에서 지킬 학습 약속 3개 정하기
- ④ 모듬별 약속을 칠판 나누기로 확인하고 학급의 학습 약속 4~5개 정하기

칭찬하고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 근육을 길러 배움의 즐거움 느끼게 하기

학습 약속 만들기 활동 후에는 모듬원과 학급 친구들이 서로 칭찬하기를 하면 성취감과 행복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또 매일 아침 감사일기 쓰기로 긍정의 마음을 기르면 배움의 즐거움을 더 높일 수 있다.

나의 거꾸로 교실



1. “거꾸로 교실”을 만나다.

교직경력 20년차, 나는 항상 잘 가르치고 싶었다. 나의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길 바라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가르쳐 왔었다. 이런 전통적 수업방식이 최선이고 유일한 나의 역할이었으며, 이에 학생들은 수업 중에는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자발적이고 흥미롭게 학습을 하였는지는 의문이었다.

우연히 시청한 KBS의 "미래교실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 수업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교실을 찾는 샘"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영상만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캠프에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다. 그런데 연수 내내 주변 선생님들이 비워진 교실을 무엇으로 채울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수업 전에 내 영상을 보고 올 것이고 그럼 난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비움과 채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진 못했으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사들과 본인들이 많은 노력으로 연구하고 경험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는 주변교사, 이제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연수 방법들이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2. 실패와 수정...

캠프에서 돌아와 방학 중에 10분 분량 영상 3개를 준비하여 개학 후 첫 수업에 강의수업이 아닌 "거꾸로 교실"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둘째 날 수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몇 번의 NG를 내면서 정성껏 만든 영상을 보고 오지 않았고 일부 학생들도 대충 보고 와서 영상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고 나도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각 조에 똑같은 소리를 6번씩 반복하고 다녔다. 한조에게 설명할 때면 다른 조는 떠들고 놀아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나는 첫 수업을 끝내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눠줄 학습지를 수정했다. 같은 내용을 수업하는 다섯 반의 학습지가 모두 달랐다. 처음 일주일만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 학생들은 예전처럼 강의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20년간 했던 내 강의식 수업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학생들과 나는 힘들어 했다. 그런데 강의식 수업에서 의욕 없어 보이는 소수의 소극적인 학생들과 성실한 여학생들이 "거꾸로 교실"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많은 고민 끝에 일단 지속하기로 했다. 예전에 나갔던 수업연구대회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고민하여 수업시간을 꾸려 나갔다.

3. 안정되어 가는 나의 “거꾸로 교실”

한 달 정도 실패와 수정을 거듭하면서 사전 학습할 디딤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도구인 것을 깨닫고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채움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으로 했다. 수업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틀을 뒤집었다. “거꾸로 교실” 초창기에는 영상부터 찍고 학습지를 만들었지만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1개월이 지난 후에 깨닫고, 이제는 중 단원 (7 ~ 8차시) 학습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만으로 매 차시 5~10분 분량의 디딤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업 전날 반별 밴드에 올렸다. 아이들의 성향과 수준을 고려한 4인 1조로 구성된 조 편성도 다시 했다. 한 장씩 나누워 주던 학습지도 7~8장을 묶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했다. 영상에는 아주 간단한 퀴즈문제를 제시하고 휴대폰으로 정답을 빨리 보내는 학생에게 사탕을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썼다. 학생들은 집에서 디딤 영상을 보고 학교에 오면 영상 시청내용과 학습지 앞면에 있는 개념들을 조원끼리 토론하여 이해하고 5분 후에 각 조에서 주사위 던지기로 뽑힌 조원 한명이 바로 다음 조로 이동하여 자기 조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다음 조 아이들에게 발표하게 했다. 발표를 잘한 조원이 속한 조는 학습지 뒷면에 있는 심화문제를 풀게 하고 발표가 미진한 조원은 다시 자기조로 돌아가 기본개념을 다시 학습 후 심화 문제를 풀게 했다.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나의 거꾸로 교실이 안정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각조의 조장들은 영상 내용을 조원에게 설명해 주기위해 두세 번 반복해서 듣고 와서는 자세히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강의의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실한 학생들은 영상 내용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필기해 와 조원들과 질의와 토론을 하기도 했다. 희망이 보였다.

4. “거꾸로 교실”이 내게 준 감동

“거꾸로 교실” 두 달 쯤 어느 날, 피치 못할 공적인 일로 수업을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 시험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내가 가르치는 학반 학생들이 나 없이 수업을 했었다. 설마하고 다음날 학습지를 보니 진짜 학생들끼리 공부를 했다. 내가 없는데 마치 내가 있을 때처럼 미리 보고 온 영상 내용을 토대로 기본 개념을 토론하고, 주사위도 던지고 다음조로 가서 발표도 하고... 감동이었다. 이제까지 집착했던 영상 시청률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디딤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도 교실 내에서 서로 도와가며 학습을 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흥미를 느껴가는 것 같았다. 간혹 수업시간에 피파와 롤 게임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45분이란 시간을 모두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다. 교육이 단순히 학습내용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가 맞물려야 한다고 깨달았다. 아이들과 내가 동시에 만족하는 수업을 하니 학생들이 전체가 아닌 개인으로 관찰했다. 이전처럼 수학 문제 푸는 능력과 속도만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고, 설명을 잘하는 학생 성실한 학생, 발표를 잘하는 학생, 친구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장점에 대해 칭찬해 주었다. 한 학기 수업 후 2차 고사를 본 결과 학생들 성적도 많이 향상되었다. “거꾸로 교실” 이전에 20점이었던 수준별 중반, 하반의 평균 차가 4~5점 차이로 좁혀졌고 학생들은 내년에도 이 수업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해주었다. “거꾸로 교실”은 나에게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 시켜주는 좋은 수업 그 이상이었다. 무미건조하게 교과서 내용의 전달자와 교실의 통제자 역할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그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거꾸로 교실”이 나에게 준 더 큰 선물이다. 2014년 2학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오랜만에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선정이라는 만선의 기쁨이 있기까지

글 통영 충무초등학교 교감 임화천

만선의 기쁨을 위한 해오름교육과정의 그물을 던지다.

본교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智), 덕(德), 체(體) 뿐만 아니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양친화형의 ‘해(海)오름 행복교육과정’이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2년여에 걸쳐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해양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였고 작년에는 전국 최우수 해양교육연구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해(海)오름 행복교육과정’은 ‘바다’라는 우리 고장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학생이 즐겁게 배우며 자신의 소중한 꿈을 가꾸고 대양을 개척한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블루리더’들이 행복한 배움의 향해를 펼쳐나가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였다. 이는 점과 해양과 인접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의 독특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라는 점에서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정신에 적절하게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배움과 인성이 함양되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건져 올린다.

본교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에 선정되기까지 가장 큰 역할은 한 것은 수업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딱히 특색이라 부를 것도 없지만 조금 더 행복한 교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가점을 받은 것 같다.

우리의 전략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를 구체화 하여 실현하기 위한 전술로 1·2학년군에는 1C(Character)인 독서 기반 바른 인성 함양 수업, 3·4학년군에는 1C(Communication)인 토의·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5·6학년군에는 1C(Creativity)의 STEAM형 융합수업, 마지막으로 전학년군에 걸쳐 (Co-teaching)인 전문강사와의 협력수업이란 1C ‘강화수업’으로 학생 참여 중심과 배움이 즐거운 수업 활동을 펼쳤다.



<프로젝트 수업의 절차>

프로젝트 수업은 한 시간의 수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선물 보따리 같은 것이다. 본교에서 처음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의 반응이 그리 시원치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선생님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교내 연수 및 협의회를 많이 실시하였다.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 자유롭게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해 보기로 하였다. 딱히 ‘인성’과 ‘수시평가’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프로젝트 수업은 그 자체가 인성교육이요, 과정중심의 평가였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거리를 만들어가고 교사는 조력자 또는 의도적 방관자가 되어 아이들을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평가부분에서는 이견이 많았지만 2학기 중간고사를 과감히 없애고 아이들의 학습활동 과정을 평가하는 수시평가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프로젝트학습 중에 실시한 활동이 평가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본교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었다.

본교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수업은 3가지 테마(인성교육, 해양교육, 진로교육)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프로젝트 수업에서 테마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짧게는 10차시, 길게는 60차시 이상을 끌고 가다 보면 인성, 해양,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자연스럽게 거쳐 가게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의 반응은 ‘힘들지만 재미있었다.’가 주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어찌해야할지를 몰랐지만 아이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생기를 발견하는 순간 무한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교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다.

만선의 기쁨으로 귀향하다.

현시대는 ‘창의성과 인성이 지식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어쩌면 올해 수확한 100대 교육과정 선정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본교 교육과정이 온 좋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스스로, 행복한 마음으로’를 담고 있는 수업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최고의 수업으로 불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대의 유행을 쫓기보다는 보편적 진리에 충실하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수업의 끝에 돌아오는 배는 언제나 만선일 것이다.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우리 충무 어린이가 블루리더로서 소중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학교를 행복 배움터로 만들어 갈 것을 충무교육가족 모두 함께 다짐해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본교 교육활동의 성과를 위해 함께 노를 젓고 무사히 만선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꿈을 향해 끼로 도전하는 오감톡톡! 신울림 교육

글 의령 신반중학교 교장 김광년

1. 오감톡톡! 후울림 교육

신반중학교는 도시와 동떨어진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10여명의 소규모 학교이다. 이전부터 수업혁신 노력, 진로·체험교육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고, 현재는 인성으로 창의력을 키우며 꿈과 끼를 키우는 공교육의 모델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며 브랜드 파워 교과교육과 명불허전 체험·진로 활동으로 꿈을 위해 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오감톡톡! 행복한 어울림 교육을 펼쳐가고 있다.

2. 끼로 도전하는 후울림 교육!

가. 미래를 그리는 융합연구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두개 교과의 여러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과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창의 융합 체험학습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감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협력학습을 통해 올바른 인성이 함양되는 융합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나.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수업디자인

1교사 1브랜드의 수업디자인 수업 실시,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수업 방법 개선, 공동체놀이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형성 후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제공하여 주제와 함께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력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현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토의·토론학습, 역사재판, 판소리와 문학, Dream Hunter, 내추럴 오가닉 등의 브랜드 수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브랜드 파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영어, 수학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전학년 4개 교과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개인차에 따른 협력학습 및 활동 중심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행복동행노트를 활용한 또래학습『행복동행』을 연계하여 예습법과 복습법의 학습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북앤 라이프』 독서 PLAN

가치관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독서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고자 하루 1시간, 1주일 1권 이상 독서하는 1·1·1 운동을 시작으로 창녕 도서관의 찾아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학기마다 방과후 가족단위의 향기가 있는 도서관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글날을 즈음하여 독서 릴레이행사를 실시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 시켰으며 십여 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방과후 독서토론 동아리에서는 북아트, 독서후 가방 그림 그리기, 독서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책 읽는 학교 문화의 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

마. 명불허전 학생체험 동아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8개의 학생체험 동아리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방과후 연계 가야금, 락밴드의 예술 끼를 키우는 「악기연주 동아리」, 학생, 학부모, 교사 동행의 반찬, 김장나눔 활동을 하는 「행복나눔 동아리」, 노인전문병원에서 매월 정기적 봉사활동을 하는 「미스나누미 동아리」, 방송 분야의 끼 충전 및 비판적 사고력 향상 활동을 하는 「영상 및 독서토론 동아리」등 이러한 동아리들은 방과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바. 미래를 디자인 하는 『블루비전』

학생들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부족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동기부여에서 시작하여 부족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체험활동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직업체험여행, 공부하는 동기를 찾는 비전캠프, 꿈과 끼로 하나 되는 행복키움 페스티벌, 꿈 달성 단계별 목표

를 세우는 진로캠프, 교실 밖 직업체험학습, 꿈을 담은 발표대회, 동아리 발표대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거처 나의 스토리북을 제작하여 상급학교와 연계하는 진로교육을 펼쳐가고 있다.

사. Wannabe 진로동아리 활동

직업카드, 진로모델링,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탐색, 버킷리스트, 비전스토리, 나의 스토리텔링 등의 단계별 진로 활동을 교사 1인당 8명 내외의 소인수 그룹 진로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하여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그 동안의 활동자료를 전시 및 발표하였다.

아. 인·우·미 동아리활동

본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인성문제를 인식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 현장적용에서 부터 교과 학습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인성문제를 액션러닝으로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수행 동아리 인·우·미(인성이 우리의 미래)를 신반중학교 특색 동아리로 개발하였다.

자발적 의지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팀웍을 바탕으로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액션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인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 실험·검증,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학생주도로 운영하여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3. 꿈을 향해 가는 후올림 교육!

신반중학교는 3년간의 연중 돌봄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운영하며 수업혁신을 향한 노력, 진로·체험교육 실시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인성으로 창의력을 키우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녹아있는 다양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창의·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창의·인성 교육의 모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동학습으로 키워가는 배움이 즐거운 우리반

글 산청초등학교 교사 김경태

배움이 즐거운 우리반, 이렇게 시작되다.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사는 학생들은 쌍방향 소통 매체들의 지나친 사용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오히려 상실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구조화하고 다양한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고 결정 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인터넷 영상, 스마트 기기에만 몰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아이들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자신의 세계만 고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에 협동학습이 지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 분위기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문방 학습으로 즐거운 공부 시간을 만들다.

배우는 것이 즐거운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학급에서 운영하는 것은 STEAM 요소가 가미된 전문방 협동학습 모형이다. 우리 학급의 전문방 학습은 ‘스마트 박사방, 연극방, 정보방, 음악방, 토의·토론방’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둠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학습방은 모둠 스스로 학습에서 시작하여 러닝 페어 모둠 발표로 마무리 짓게 된다. 전문방별 주요 학습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전문방		융합영역	주요 학습 자료
①	스마트박사방	S, M	사회, 국어, 수학	질문지, 참고서, 컴퓨터, 아이패드 등
②	연극방	E	국어	역할놀이 자료 등
③	정보방	T	공학	컴퓨터, 웹 기반 자료, 아이패드 등
④	음악방	A	미술	노래집, 화이트보드, 아이패드 등
⑤	토의·토론방	M	국어, 수학	교과서, 참고서, 토의토론 자료집 등

학생들은 스마트 학습방에서 질문지, 참고서, 컴퓨터, 아이패드 등의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찾은 정보를 항목별로 분류하며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연극방에서는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후 실감나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정보방에서는 웹 기반 자료나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찾은 정보를 구성원들끼리 강의식으로 발표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음악방에서는 모둠원끼리 곡 하나를 정하고 학습 내용 중심으로 바꾼 노래를 함께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마지막 토의·토론방에서는 모둠원들끼리 토론 주제를 정하여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사전투표를 하고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토론을 이끌게 한 다음, 토론이 끝난 뒤 사후투표로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방 학습은 한 차시의 학습보다 2개 차시의 학습을 하나로 묶어 실시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차시에서는 2개 차시에 대한 예습 및 안내를 하고 학생들 스스로 모둠별 전문방 협동학습 발표를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서 러닝페어 모둠발표 시간 운영 및 자기평가로 학습을 마무리하면 된다.

러닝 페어, 나눔 학습으로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다.

처음, 전문방 학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학습 내내 티격태격 싸우던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협동이 기본 토대인 전문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자 아이들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며 공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이는 함께하는 학습에 서툴렀던 아이들이 전문방 학습을 통해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부족한 친구에게는 도움을 주고, 잘 못하는 모둠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전문방 학습을 통해 기타, 드럼을 좋아하는 친구는 음악방에서 끼와 소질을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는 정보방에서 PPT제작으로 재주를 뽐내고,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토의·토론방에서 말솜씨를 뽐내고, 연극방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연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스마트 박사방에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처럼 변신하기도 하며 저마다의 꿈과 끼를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키워나가게 되었다.

배움 중심 즐거운 교실에서 모두가 멋진 꿈을 키워가며...

전문방 협동학습 운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밝아진 학급분위기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이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더하자면 아이들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교사로서의 내 모습일 것이다.





착한 생각, 착한 꿈을 키워가는 공감대화 행복 프로젝트 수업 SINCE 2012 「공감대화연구회」를 만나다

글 함안 호암초등학교 교사 변은정

「공감대화연구회」를 시작하며

공감대화연구회는 2012년, 학생들의 공감력 향상을 위하여 결성한 창의·인성수업연구회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화 및 토의토론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감정과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속상한 감정이나 상처를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주는 치유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회 이름을 ‘공감대화’로 정하였다.

도덕과 중심의 공감대화 수업 모델 개발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덕목과 행동을 학생들의 삶과 연결시켜 창의와 인성을 고루 갖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심연구 교과를 도덕교과 및 1, 2학년 통합교과 바른생활 영역으로 정하여 창의성 영역으로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판단력을 기르는 다각적 사고능력을 중점적으로 하며, 인성 영역으로는 공감능력과 감정조절능력을 기르고, 자존감을 향상하여 관계성을 회복하는 ‘공감대화’ 수업모델을 연구하였다.

착한 생각 착한 꿈으로 공감대화 행복 찾기

Since 2012 공감대화 연구회 성과

☼ 2012학년도 ‘나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하며 만드는 우정의 고리’ 라는 연구 주제로 개발 적용하여 2012년 전국 최우수 연구회 및 우수 수업모델로 선정된 <공감대화 수업모델>을 기반으로

2013학년도 ‘생각을 키우고 공감을 나누며 마음을 가꾸는 공감대화 프로젝트 수업’을, 2014학년도 ‘착한 생각, 착한 꿈을 키워 가는 공감대화 행복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 적용하여 3년 연속 우수연구회로 선정되었다.

※ 2014년, 새롭게 함께 한 연구회원들이 있어 공감대화 행복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디딤돌 도서 선정 및 독서토론,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 공동수업설계 및 수업사례발표 등을 통해 공감대화 수업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정기협의회(매월 2, 4주 금. 18시)와 연구회 카페를 활용한 협력연구로 질 높은 수업자료 개발과 공감대화의 행복한 학급경영 및 수업적용사례 발표토론을 거쳐 수정·보완한 내용을 교육부 「행복한교육」11월호, 「교육경남」겨울호 등에 발표하였다.

Since 2012 공감대화 수업 실천

※ 도덕과 중심 국어, 사회 등 연계 교과와 핵심성취기준 분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학생의 도덕적 경험과 삶을 연결하는 <공감대화 행복 프로젝트 수업>을 연구·적용하였다.

※ 도덕과 중심 융합형 행복 프로젝트 수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급 약속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연구위원들과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책 「틀려도 괜찮아」를 읽어주고, 이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존중과 배려의 학급 약속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내고 함께 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를 지키며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수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 감정코칭과 비폭력대화 기반의 행복한 대화놀이 중심 ‘공감대화’ 방법을 집중 연구·적용하여 교사가 먼저 학생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공감·신뢰하는 학급경영 및 교실수업으로 교사, 학생의 공감력과 자존감, 배려, 협업, 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

※ 공감을 일깨우는 그림책 읽기 외 명화,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다큐영상 등 다양한 감성 체험활동과 브레인스토밍, 문답법, 마인드맵, 육색사고모자, PMI 등의 창의적 사고활동 및 토의·토론, 역할놀이, UCC 등의 협업 활동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전개하였다.

※ 인성교육 7대 덕목 포함 공정·봉사·생명·인권·나눔 등 도덕과 덕목 및 영역에서 착한 생각과 착한 꿈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느낀 점과 배운 점, 꿈 설계 등의 공감대화 나누기로 학생들의 착한 생각, 착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

공감대화연구회, <2015. 공감대화 행복수업 콘서트>로 행복한 교실 가꾸기

지난 3년간 도덕과 중심 공감대화 수업에 대해 매년 주제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실천한 내용을 토대로 2015학년도에는 예술 영역 융합 강화 및 행복한 공감대화 놀이방법을 심화 연구하고, 이를 적용한 공감과 소통이 있는 교실 및 수업 이야기를 통해 함께 힐링하는 행복수업 콘서트를 열어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나누고자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 속에 답을 찾다

창원 전안초등학교 차승민선생님을 만나다.

Q.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A. 17년차 교사로 현재 전안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6학년 담임경험이 12회 있습니다. 또한 10년 간 영화로 하는 인성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선생님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2014년 11월 경에 출간 하였으며 2015년 봄에는 학생 사용설명서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Q. 선생님(학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 책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학생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을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나 학생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기 위한 대안적 교과서로 만든 책입니다. 먼저 학생 사용 설명서는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현재 교육현장에서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잉 상태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를 고민했습니다. 17년 간 교직 경험속에 대부분 고학년을 담당하면서 조금 거창하지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괴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은 좀 더 가정에 치중하고 교과 교육은 학교에서 맡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Q.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A. 선생님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 1) 인사잘하기 2) 미안해, 고마워라고 말할 줄 알기
- 3) 시간 약속 지키기 4) 자기 주변 정리하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39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생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지,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실천적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잘 사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에 대한 차이를 책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Q. 어떤 이유로 이런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요?

A. 제 아이가 초등 5학년때 학교를 거부 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부부교사였던 우리 가족에게 이 사건은 청천벽력같은 일이었지요. 저는 먼저 제 아이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4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해 주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많이 달라져서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공감력, 측은지심 같은 것이 교육의 방법에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아이는 14시간 게임을 하면서 게임 개발자가 꿈입니다. 현실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에 대해 나름의 답을 쏟아낸 것이 이 책입니다.

학급 운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원칙 외에는 허용적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결과적으로 성격과 같은 인성 외적인 요인까지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가지를 잘 지키는 아이들이 진정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상담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4가지 법칙을 계속 이어가고 지킬 수 있었기에 학생들의 자존감이 잘 형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교육과정의 목표가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을 만드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학급운영의 기본 4가지가 바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학생들이 신체는 커졌는데 심적으로 구멍을 뚫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메꾸주기 위해서 영화를 가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기르고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엮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흙탕 속에 파묻혀 버린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좀 해결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학부모님과 사실 그동안 많이 싸웠는데 요즘에는 어떤 이유든 무조건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 중에 우시면서 상처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좀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Q. 앞으로 계획,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계속 글을 쓰고 싶습니다. 교실은 무궁무진한 콘텐츠 같습니다. 똑같은 제목이라도 학생들의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 소통 매체를 통해 공유하다 보니 다른 분들이 제 글을 보고 함께 소통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공교육의 현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같이 힐링이 되는 그러한 글들을 쓰고, 영화교육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책 읽는 교사의 서재

BOOK 人

마산동중학교 교사 정한섭

교사 정한섭의 서재는 삶에 대한 위안이다.

인간의 삶과 세상은 불완전한 것이며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중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책을 사서 모으는 것도 취미입니다.

요즘은 독서와 디베이트를 접목해서 독서토론지도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실천보다는 비판에 능한 회의주의자입니다.

1. 선생님의 어린 시절과 독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괴도 루팡이나 셜록 홈즈의 문고본 추리소설들, 전래동화들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만화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 독서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때 세로줄 쓰기로 된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은 것입니다. 신(神)과 종교와 인간을 이야기하는 그 세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때의 놀람이 지금까지 책을 읽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하나는 대학교 때 평론가 김현의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를 읽은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논리와 상상력으로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꼈습니다.

2. 선생님의 서재를 소개해 주세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샀던 책을 또 사기도 합니다. 책들의 종류를 말하기 보다는 좋아하는 작가들을 말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철학자 미셸 푸코, 한나 아렌트, 평론가 수잔 손탁, 에드워드 사이드,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 밀란 쿤데라, 헤르만 헤세, 미셸 투르니에, 시인 이성복과 허만하, 그리고 번역가로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작품들을 번역하고 있는 천병희의 전작주의자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양서, 혹은 좋은 독서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좋은 책은 작가로부터 시작되어서 독자에게서 완성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의 노력을 통해 양서가 완성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책을 읽을 기회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4. 학생들 혹은 동료 교사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랑'에 관한 소설들 중, 너무 두껍지 않은 세 권을 추천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읽기 싫어지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욕망만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사랑에 대해, 나아가서는 삶과 인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소설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선생님이 읽으신 독서와 관련해 혹시 교과와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요?

저에게 있어 독서와 수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어교사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서는 수업에 항상 스며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서와 디베이트를 결합해서 독서토론지도도를 해보는 중입니다. 저는 오로지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경험만으로 토론을 하도록 독서토론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교사의 서재 BOOK in



다다를 수 없는 나라

크리스토프 바타이유 (지은이) | 김화영 (옮긴이) | 문학동네 | 2006-10-19 |

이 소설에서 우리는 도미니크 수사와 카트린느 수녀의 사랑, 죽음조차 초월해버린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고독, 망각과 외로움의 가나긴 여정 속에서 도미니크와 카트린느는 자신들의 존재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각각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 속에 만연한 권태와 고독, 외로움과 텅빔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 소설은 보여줍니다. 죽음과 고독의 기록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로마의 테라스

파스칼 키냐르 (지은이) | 송의경 (옮긴이) | 문학과지성사 | 2002-11-28 |

판화가 몸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남녀를 주로 그립니다. 그의 판화는 사랑하는 여인의 이미지를 어둠에서 끌어내는 작업이며, 사랑하는 단 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몸드의 판화들, 그것은 잃어버린, 부재하는 대상(나니)에 대한 꿈이며, 사랑이며, 허기며, 불안 그리고 비통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언어와 육체 그리고 예술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적의 화장법

아멜리 노통브 (지은이) | 성귀수 (옮긴이) | 문학세계사 | 2013-01-10 |

이 소설은 자기 중심적 사랑의 폭력성을 섬뜩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불완전성과 상처에 결합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같은 상처를 지닌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기 보존 본능과 연결될 경우, 사랑이라는 이름의 극단적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향길



글 창원고등학교 교사 이유종

집이 부산이라 창원에 있는 학교까지 사십여 킬로미터를 매일 자가용을 타고 줄넘기 넘듯이 헉헉거리며 왕복했는데 최근에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로 결심을 했다.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버스로 창원까지 오십 분을 간다. 버스에 내려서 다시 사십 분을 걸어서 출근한다. 자가용으로 사십 분이면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를 두 시간이나 걸려서 하는 이유는 돈을 아끼자는 경제적 측면이나 자연을 보호하자는 거창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걸어보자는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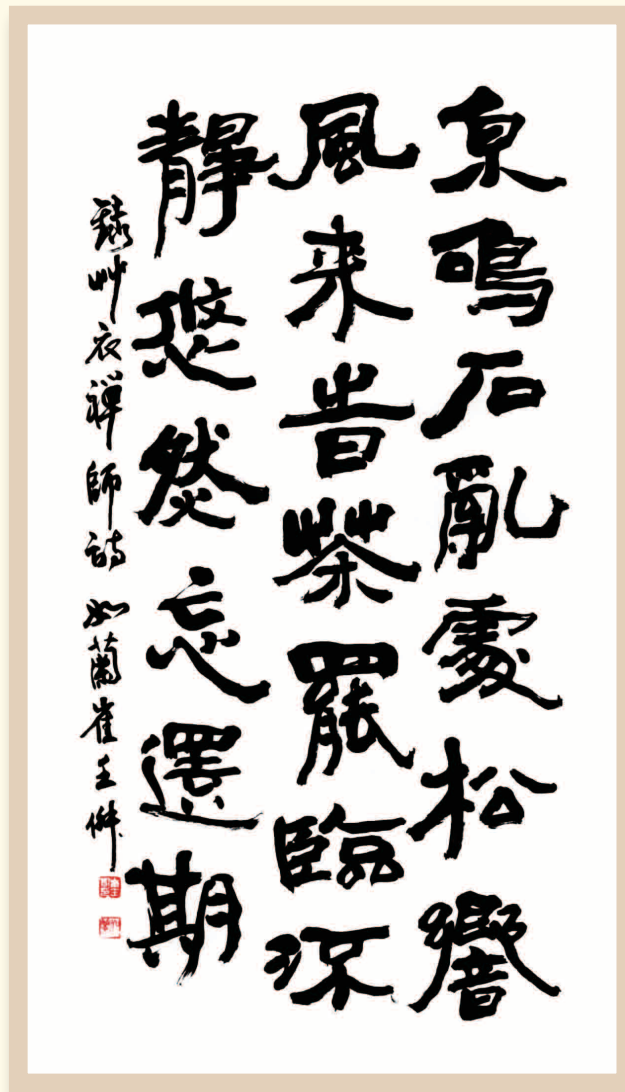
어렸을 적 고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십 리를 걸어서 등학교 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폭설이 내린 아침은 죽기보다 걷기 싫었던 그 길. 먼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하던 어머니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별다른 반찬도 없이 간장에 밥 비벼먹고 나섰던 새벽길. 나이가 들어서 그런 탓인지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은 자취를 감추고 좋았던 기억만 떠오른다.

출근길은 무엇보다 걷는 시간이 너무 좋다. 가능하면 아스팔트를 피해서 산을 끼고 도시 변두리 텃밭 사이로 난 길을 느리게 걷다보면 차를 타고 쉼 지나가면 절대 볼 수 없었을 풍경을 보게 된다. 진달래가 새초롬히 피었다 질 때쯤이면, 수천 마리 샛노란 벌떼로 피어난 개나리의 아찔한 향연에 참가하게 되고 가지 위쪽부터 개나리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햇볕 잘 받는 곳에 선 벚나무부터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다. 계절마다 순환하며 항구의 앞바다를 수놓았을 물고기떼처럼 꽃들이 시간의 질서에 순응하며 산야를 충천연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 번은 보도블록을 밟으며 걷다 어린 참새의 시체를 보았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죽은 새를 한 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이 어린 새는 어쩌다 생명을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이른 봄에 죽음을 맞이했을까. 비정한 도시의 삶이 싫어 스스로 생명줄을 놓아버린 것일까. 온갖 상념이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소용돌이친다. 그때 마침 청소부 아저씨가 짐게로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으며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다. 문득 이 새도 쓰레기로 봉투에 담기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어린 새의 죽음은 삶의 허망함을 느끼게 했다.

자가용을 버리고 걷다가 만나게 된 소소한 깨달음들, 자연의 향기, 사람의 향기를 느끼면서 걷는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이 고향에서 걸었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시골도 도시화되어 집집마다 자가용이나 오토바이가 있어서 옛날만큼 잘 걷지 않는다. 이제 그 누구도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란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걸어보는 것, 그것이 고향길을 걷는 것이다. 그때 자연은 고향이 되고, 사람도 고향이 된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무작정 도시를 걷고 싶다. 수천 마리 하얀 벌떼처럼 함박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도시가 품고 있는 자연, 그 안에서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느끼게 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고향길을 걸었던 추억이 필요하다. 아이에게는 이 도시가 고향이 아니겠는가.



泉鳴石亂處(천명석란처) 바위 사이 흐르는 샘물소리에
松響風來時(송향풍래시) 바람 속에 솔 소리 함께 온다네.
茶罷臨流靜(다파임유정) 고요히 흐르는 계곡에서 차 마시며
悠然忘還期(유연망환기) 느긋한 생각에 돌아갈 걸 잊었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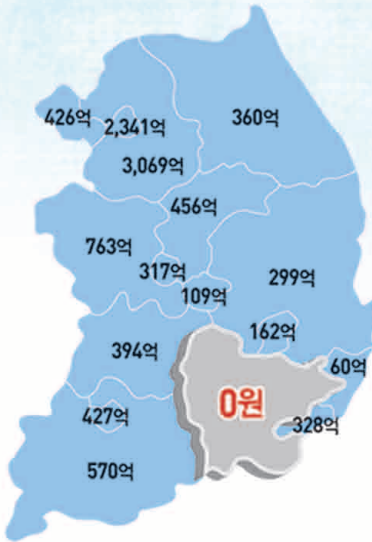
- 草衣禪師 詩句 -

최임숙 / 현) 삼정자초등학교 교사

•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입선 • 경상남도서예대전 초대작가
• 전국정음사서예대전 대상 및 초대작가 • 교원예능연구대회 1등급(한글, 한문)

학교급식 지원,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전국 학교무상급식 지자체 지원 현황도

164억

무상급식!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도민과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경남도민께 드리는 교육감의 약속



하나 지난 8년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남의 학교급식을 더 안전하고 건강한 무상급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 아이들의 밥값을 이용하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셋 학부모를 비롯한 경남의 모든 교육가족을 위해 교육자치를 반드시 지켜 가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의 밥보다,

교육적 의미가

더 깊습니다!

경남도청의 일방적인 급식 경비 지원 중단!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초중고 자녀 24명이면 매월 최소 10만원
연간 120~36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려 하십니까?

학교에 밥을 주려고 왔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 경남의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2007년부터 8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 도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국민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경남도청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합의하고, 지원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려면 **도민과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이 2012년 1월 9일 체결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년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에 대한 2012년 예산으로 지원한다.
2. 지원예산은 각각 4,200억 원과 1,000억 원으로 한다.
3. 향후 학교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협의는 별도 계약서 체결을 통해 협의한다.
4.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운영예산으로 지원한다.

2012년 2월 11일
경남교육청장 김경환 / 경남도교육청장 조.인.주

무상급식 계속되어야 합니다

- 학교급식은 교육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 경남도청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도민의 57%가 반대**합니다.
- 경남도(시·군청)의 급식예산 지원이 끊기면, 22만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KBS 창원
2016년 1월 1일 9시 뉴스

무상급식 중단 반대 찬성

반대 57.3 찬성 37.6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교육청 재원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설립을 포기**해야 합니다.
- 경남교육청 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지만, 경남도 예산은 18조원이 넘습니다. 재정 파탄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2015년도 예산 기준, 시·군 포함)
- 오히려 당초 계획했던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비를 증충적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 불용액은 남아 있는 돈이 아닙니다.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한다면 10%나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생남방비, 화장실·돌봄교실 예산 등에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예산 2015년

3조 8,622억 경상남도교육청
18조 1,175억 경상남도

예산 2016년

7,799억 경상남도교육청
1조 1,997억 경상남도

시·군 포함